



농림수산식품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은 기존 1조원은 기존 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사업주관사업 등 완료한바 있으며 7월 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축산농가에 대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정부에서 1%, 농협이 1%씩 부담하여 농가 지원금리를 1%로 낮추는 등 사료가격 추가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추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농가에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 사업신청을 시·군·구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변경하여 사업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농가에게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였다.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하였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을 기 지원 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추경예산 5,850억원 편성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원유·비료·곡물가격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850억원

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지속에 따라 경영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연료효율이 떨어지는 1,900척의 어선을 추가 감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350억원을 지원한다.

국제 비료원료가격에 따른 국내비료가격 상승(60%이상)분의 30%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 3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확대지원을 위해 62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하반기 소부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매몰처분(살처분) 보상금 소요액 500억원을 편성하였다.

기타, 국제쌀값 상승으로 인한 2008년도 최소시장접근(MMA) 수입쌀 구입에 추가 소요비용 2,078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판매촉진비 5% 추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가상승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판매촉진비를 6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다 5% 늘려 지원하기로 하였다. 판매촉진비 지원은 과실, 채소, 화훼, 김치, 인삼, 축산물, 장류, 가공밥, 곡류, 전통주, 녹차 등 11개 부류 100여개 품목에 지원되고 있으며, 2007년말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업체는 총 253개다.

이 같은 조치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느끼는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를 통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식품 수출상승세(24%)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장은 “국제유

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외 운임 상승 등에 따라 최근 5개년간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는 연평균 5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금년 5. 20일 기준 Dubai산 원유는 120\$/b수준, 국내 면세유는 전년 대비 69% 상승(경유 1,048원, 80% 상승)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기간 종료 후 재원사정이 나 유가동향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의 조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수출업체의 요소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수출물류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물류비를 금년하반기에 재산정할 계획이다(현재 물류비 기준은 2004년도 책정).

농협중앙회와 농정현안 간담회 개최결과

농림수산식품부 간부(장관외 6명)와 농협중앙회 간부(회장의 6명)들은 지난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비료·사료가격 동향 등 당면한 농업부문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사료·비료 등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농자재 값이 최근 급등하는 현상을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고,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은 농협이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여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하반기 시행에 대비하고, 정부도 임대사업 농기계의 면세유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운천 장관은 “농

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규모화·조직화·차별화 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며, 그 대안이 시·군 유통회사 등 신정부 5대 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의 대농업인 지원 계획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협은 최근 유가급등·원자재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 입장을 감안, 각종 농업용자재의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사료 판매의 경우에는 하루 적자액이 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FAO 식량안보 정상회의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지난 6월 5일 (한국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안보 정상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기아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FA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차관은 개도국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지원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화로운 대응, 장·단기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특히 식량가격 폭등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연료에 대해서 이의 생산, 기술개발 및 이용이 식량안보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축산물HACCP기준원 특수법인 전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2일 축산물HACCP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기준원)을 법적인 기구 (특수법인)로 전환·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2008. 6. 22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물HACCP은 상품화된 최종제품을 샘플 검사하는 것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축산물 안전관리 기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 출발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의 80%이상 HACCP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2006. 10월부터 2008. 6월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격으로 식육포장 처리업 515개소, 농장 120개소 등 907개소(국내 축산물 생산·유통물량의 46% 수준)에 대해 HACCP 심사와 기술 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사단법인 생명축산연구협회 설립허가 공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114호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축산연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37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생명축산연구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강동구 길동 366-4 보광빌딩 302호

4. 대표자 : 김학제

5. 설립목적

- 조류 및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AI, 돼지에서 발생하는 PMWS(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등의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축산물 질병예방 및 품질개선과 축산기술 연구개발 보급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중 유해 미생물 검사 능력 국제 인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 영남지원 정밀 검사과는 영국 농업환경식품부(DEFRA) 산하 Central Science Laboratory에서 주관하는 미생물분야 국제비교숙련도 시험인 FEFAS에 참가하여, 축산물 중 유해 미생물 검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

검역원 영남지원은 수입축산물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와 검



사 결과로 인한 국제적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국제인정실험실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본 시험에 참가하여 2007년에는 분유 중 살모넬라 검출시험에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08년에 영남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인 'Campylobacter spp. 의 항생제 내성에 관한 연구' 와도 연계하여 최근 닭고기 중 식품안전성과 항생제 내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닭고기 중 캄필로박터균'의 검출 시험에 참가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전 세계 38개 시험소가 참가한 이 분야에서 6개 시험소(16%)가 탈락하였는데, 금번의 성과는 무엇보다 수입 축산물 검사의 최일선 현장인 영남지원에서 이루어져 검역원의 연구개발 능력과 함께 신뢰성 있는 검사 능력을 보여 준 쾌거라 할 수 있다.

한편, 검역원 영남지원 정밀검사과는 2007년 연말부터 업무분장을 통해 품질관리팀과 품질경영팀을 운영함으로써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결과의 품질인증을 위해 국제인정실험실 (ISO/IEC 17025)기반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재래시장 등 불법도축유통판매 특별단속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3주간) 전국 재래시장 및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닭·오리 불법도축·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반(총543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405명) 및 시·도(시·군·구)공무원(130명),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8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재래시장, 판매업소, 농장, 도축장 등 857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위반자) 1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도축 9건,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6건, 도축장 소독실시기록부 기재누락 1건, 가축수송차량 세척 소독시설 미흡 1건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사법당국 및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닭·오리 불법도축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HACCP 기준원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산학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5월 29일에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장병준)과 '축산물 위생안전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 및 협력과 축산물HACCP에 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날 11시부터 기준원 9층 임원실에서 협정식이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이상목 교수, 박승용 교수, 서정향 교수도 함께 참석하였다.

축산물HACCP기준원 곽형근 원장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건국대학교와의 MOU 체결로 HACCP 활성화 및 HACCP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산학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난 6월 3일 안양에



소재한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이완규)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 및 협력과 축산물HACCP에 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는 안병우 부학장, 모인필 교수, 이범준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번에 교환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 HACCP 교육관련 업무 협조 ▲기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완규 학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현재 양 기관이 물질적, 인적차원에서 HACCP의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 협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농촌진흥청

궁중별미 '초계탕' 책자 발간

조선시대부터 궁중요리로서 여름철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초계탕'에 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 이번 발간된 '초계탕'은 닭요리의 전문가인 김성수 사장과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한국농업대학의 이건순 교수가 국내 닭고기 관련 농가 및 산업체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헬스 등 멋진 몸만들기에 반드시 언급되는 닭고기의 영양적인 면을 부각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공동 집필하였다.

저자들에게 의하면 예로부터 초계탕은 궁중별미로 전해져왔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주변에서 흔히 맛을 볼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닭고기의 소비도 촉진하고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소개할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초계탕은 주된 재료인 삶은 닭에 여러 가지 채소와 식초, 겨자를 넣고 기름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만드는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예로부터 여름철의 대표적인 궁중 요리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거의 명맥이 끊겨 일부 양반가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이어 받은 몇몇 음식점만이 남아 있어 저자들이 술한 시향착오를 거쳐 지금 시대의 기호에 맞는 서민적 음식으로서의 초계탕으로 소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는 초계탕 이외에도 식품재료를 어떻게 다듬고 보관하고 준비하여 요리를 해야 맛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닭을 맛있게 삶는 방법, 김치를 맛있게 담는 방법 등을 총천연색으로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닭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전통요리를 배우는 사람, 조리를 배우는 대학생, 가정주부들이 쉽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문의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대학 이건순 031-229-505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자문위원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6월 19일 회의실에서 가축위생방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국가방역 시스템 개선, 재난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본부 역할제고, 닭·오리 도축장 검사공영화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상호 본부장은 "방역본부는 경영비전인 '가축 방역 통합지원 기관육성'을 위하여 강도 높은 혁신활동을 전개한 결과 매년 고객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고객이 먼저찾는 방역본부'로 발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중 자문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HPAI 국가 방역시스템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본부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 가축전염병 근절사업과 축산물 위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김용상 사무관은 정부에서 마련 중인 'HPAI 국가 방역 시스템 개선방

안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공수의사가 소·돼지·닭 등 축종별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HPAI 발생시는 조류질병 전문 공수의사가 방역에 참여함으로써 방역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시 검사를 위한 시·도 시험소 검사기능 강화 ▲친환경농법에 활용된 오리의 모니터링 검사 후 일괄도축 ▲신고 유무에 따른 강도 높은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본부 역할에 대해 방역본부 노천섭 전무는 “HPAI는 초기 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심축 발생신고와 동시에 해당농장에 대한 통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초동방역팀을 편성하여 평소에 초동방역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발생시 투입함으로써 농장통제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살처분·소독 등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역할은 평소 채혈과 예찰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하면서 농장위치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방역사가 적임이라며, 방역본부에 이러한 임무 부여시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책임을 완수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아울러 현재 닭·오리 도축장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체검사원제도를 공영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검사 및 방역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008년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6. 19일부터 중추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도축검사보조원의 검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상호 본부장은 지난 6월 19일 1기 입교식에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축산물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는 도축검사보조원들의 임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교육을 통해 검사능력을 배가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도축검사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물위생팀 강대진 사무관의 ‘축산물 위생정책’ 강의에 이어 ‘도축장 위생관리 및 BSE’, ‘최근 소·돼지 질병발생 동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도축검사원들이 검사과정에서 검색되어진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한국마사회

양계농가 돕기 닭고기 판매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는 7월 20일까지 '양계 농가 돕기 닭고기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서울 경마공원 관람대 후면에 위치한 팔각정 부근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닭고기의 안전성 홍보와 현장에서 직접 통닭을 만들어 고객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먹거리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AI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양계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 53회 원탁토론회 개최 'AI의 국내외 발생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관에서 제5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국내외 발생 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모인필 충북대학교 수의과

대학 교수, 박승철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회장 (한림원 정회원),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환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는 "2003년 12월 첫 발생한 AI의 방역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이 6000억~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10%인 700억원만 투자해도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 농가와 외식업체 등 관련 산업 붕괴를 차단하고 사회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말로만 선진국이지 방역체계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12일 이후 국내 AI 추가 발생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진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AI 유입이 반복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 방역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AI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할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건국대 수의과 송창선 교수는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학적 효과는 의심스럽다."며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림원 석학을 비롯한 국내 AI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AI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국내 양계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